

인천 용유도의 조병수가옥에 대한 연구

한종구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건축공학과

A Study on the Byung-Su Jo's House in Yongyu Island

Jong-Koo Han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ungwoon University, Incheon Campus

요약 본 연구는 인천시 중구 남동동 용유도에 위치한 조병수 가옥을 중심으로 풍수 입지분석 및 건축공간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옥은 목체형의 주산에서 내려온 토체형 현무봉을 뒤로하고 있다. 현무봉에서 내려온 용맥을 살피 기운이 내려오고 좌청룡과 우백호로 잘 감싸여지면서 안산으로 적절히 가리워진 안온한 터에 자리하고 있다. 둘째, 가옥은 명당수 샘물이 있는 사랑마당과 서출동류하는 물을 앞에 두고 사랑채와 안채가 서로 모여 뜰 □자를 형성하면서 기가 잘 보존되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가옥은 남향을 하면서도 다소 높은 안산이 집을 위압하지 않도록 살짝 동쪽으로 틀어 배치하고 좌청룡과 우백호가 살짝 벌어진 약점은 너른 방지(方池)를 조성하여 비보하였다. 셋째, 사랑채는 전면 6칸 측면 3칸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사지에 맞게 자연석 기단을 조성하고 사랑채를 앉혔다. 지붕은 겹처마이며 소로수장 집이다. 동측에는 대문을 중심으로 동쪽에 큰사랑방이 서측에 작은 사랑방과 고향이 배치되었다. 큰사랑방은 작은사랑방보다 격을 높여 머름을 구성하였다. 대문은 육지와 달리 방어를 위해 겹대문이며 상부에 팔각형 고창을 두었다. 넷째, 안채공간은 3자 높이의 높은 기단 위에 정면 6칸 측면 4칸으로 6칸의 육간대청을 중심으로 서쪽에 안방, 동쪽에 건넌방 그리고 안방 아래로는 부엌이 있는 전형적인 중부지방 안채의 배치이다. 후원은 현무봉에서 용맥이 내려오는 곳으로 경사지로 사당이나 장독대의 배치가 여의치 않아 사당 대신 대청에 벽감을 마련하고 안방의 서측에 장독대를 마련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ite and architectural space of Byung-Su Jo's traditional house on Yongyu Island in Incheon. The house is located on a peaceful, warm site that is well protected by surrounding mountains, such as Hyunmubong to the rear, Jwacheongyong to the left, Wubackho to the right, and Ansan in front. The house was designed with an open layout with a sarangchae and ancha. There is a spring on the left side of the sarangchae, and a stream auspiciously flows from the west to the east in front of the sarangmadang. The house generally faces south, but to avoid pressure by the height of Ansan in the south direction, it is slightly turned to the east. There is a wide, rectangular pond that covers the pungsu weak point of the empty open view between the right and left mountains. The sarangchaespace is composed of front 6 Gan and side 3 Gan. The anchaespace is also composed of front 6 Gan and side 3 Gan, and it has a typical L-shaped ancha layout for the middle region of Korea. There is no shrine in the backyard, where yongmag is descending from Hyunmubong, and a jangdokdae is installed to the west direction of the anbang due to narrow and slope backyard space.

Keywords : Traditional House, Pungsu(Fengshui), Site analysis, Yongyu Island, Byung-su Jo

1. 서론

용유도는 면적 13.603km², 해안선 길이 48.2km의 섬으

로 면적만 본다면 대략 여의도의 4배 크기이다. 부근에는 영종도, 실미도, 무의도 등의 크고 작은 십여 개의 섬들이 떠있다. 이들 섬 주위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여러

본 논문은 한옥문화(2014년 여름호)에 처음 보고한 연구에 기초한 것입니다.

*Corresponding Author : Jong-Koo Han(Chungwoon University at Incheon)

Tel: +82-32-770-8176 email: jkhan@chungwoon.ac.kr

Received July 19, 2017

Revised August 11, 2017

Accepted August 17, 2017

Published August 31, 2017

개의 섬이었다가 개펄이 드러나면 큰 섬이 되었다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간석지(干潟地)였다. 예전에는 섬이어서 배를 타고서야 갈 수 있는 곳이었으나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인근의 영종도, 삼목도와 함께 간석지가 매립이 되면서 서로 연결되어 이제는 자동차로 손쉽게 가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섬은 고려시대에는 인주에 속한 섬으로 오늘날의 용유도를 가르키는 ‘용류도(龍流島)’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난다.¹⁾ 이는 당시의 용류도란 섬의 생김새가 마치 용이 헤엄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용류도란 명칭은 고려시대 이래 1910년경 용유도(龍遊道)로 바뀔 때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고려의 최충헌이 고려의 정권을 장악하고, 1211년 왕(熙宗)을 유폐시킨 곳이 바로 용유도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희종은 이곳 용유도 법천정사(法天精舍)에서 사망하기 까지 한 많은 생애를 마쳤는데, 영종지에 따르면 고려왕자의 묘가 왕산(旺山, 을왕동 소재)에 있다는 기록이 보이나 그 연유와 정확한 장소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²⁾



Fig. 1. Old map of Yongyu Island area
Sauce: Padoguhyunjido from Kyujanggak Libr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편 용유도는 섬의 모양이 ‘용이 수영을 하며 노는 모습’이라 하여 지명이 유래했다고 전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국여지도』에는 용류도(龍流島)라 기입되어 있다. 『1872년 지방지도』에도 용유면(龍流面)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주위가 20리 이고 목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³⁾ 연대와 작자가 미상이며 영조(1694~1776) 재임 중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팔도군현지도의 규장각 소장본을 보면 좌측(동쪽)으로 멀리 오늘날 영종도로 불리는 자연도(紫煙島)가 있고 용유도 쪽으로 삼목도(三木島), 동남쪽에 신불도(薪佛島),

남쪽에 무의목도(無衣牧), 서쪽으로 사탄도(沙呑島)가 보인다. 또한 용류라는 표기에 섬의 북쪽에 왕산이 그려져 있고 왼쪽(서쪽)으로 초천로(朝天路)라고 표기된 바다길이 보인다. 왕산은 팔도군현지도에는 임금왕의 王山으로 표기되었다가 1872년 지방도에는 성활왕의 旺山으로 표기가 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용유도 민가로서 행정구역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868번지에 위치한 민가 중에서 인천시에서 지정한 문화재자료 제16호로 지정된 조병수가옥을 대상으로 입지를 풍수적으로 분석하고 건축공간에 대해 고찰을 실시하였다. 가옥의 명칭은 가옥에서 실제 거주하고 계신 서예가 조병수선생의 고조부 조형규(趙亨奎)선생이 고종때 무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있을 때 오늘날 서울 마포구 용남동에서 거주하다 1850년경 이곳으로 오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한다. 당시에는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로 나라의 기운에 쇠해지던 때이며 매관매직이 성했던 시기로 그 비용을 마련키 위해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 후 회수하던 좋은 의도의 구휼제도였던 환곡을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거나, 토지에 부과되던 전정(田政)이나 군대에 안가는 대신 무명이나 삼베 등을 세금으로 낸 군정 등이 악용되었다. 이런 어지러운 시기 이를 피하기 위해 섬으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일견 인천의 용유도하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고도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곳에서 배를 타면 강화를 거쳐 마포나루를 통해 서울에 손쉽게 당도할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좋아 당시 배를 이용하여 조부께서도 학업을 서울에서 하었다고 한다.⁴⁾

2. 입지분석



Fig. 2. The house and Hyunmub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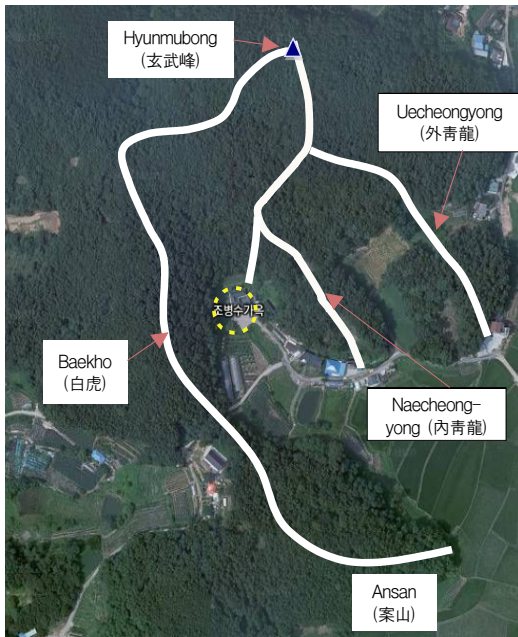


Fig. 3. Analysis of Sasinsa(四神砂; Four guard hill)

멀리서 가옥이 자리한 주변 산들의 모습을 조망해보면 가옥의 뒤편엔 주산으로 보이는 목체산(木體山)이 보이고, 그 앞에는 주산보다 낮은 높이로 가옥을 겹겹이 감싸는 청룡자락이 눈에 들어오면서 잘 발달된 우백호의 길게 뻗은 모습도 눈에 들어온다.

좌청룡의 끝자락을 돌아서서 보면 가옥이 눈에 잡힐 듯 들어온다. 이곳에서 길을 따라 몇 발자국을 내딛으면 좌측으로 제법 큰 사각형의 못인 방지(方池)가 있다. 이곳에 이정도 규모의 방지가 조성된 것이 예사롭지 않다. 규모는 가로가 40미터, 세로가 20미터 정도의 크기인데 그 형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좌청룡과 우백호 사이로 벌어진 곳을 막고 있는 모양새이다.

현무봉은 정상이 평평한 토체형(土體形)으로 70미터 정도의 높지 않은 봉우리의 용맥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의청룡을 출맥(出脈)시키고 더 내려오다가 내청룡을 출맥(出脈) 한 후 조병수가옥으로 힘차게 내려온다. 우백호는 현무봉에서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백호 자락을 형성하고 가옥 앞을 지난 후에는 가옥을 휘감듯이 지나면서 안산을 형성한다. 안산과 좌청룡의 사이로는 너른 들판이 자리하고, 그 뒤로는 멀리 떨어져 혈이 있는 가옥을 둘러싸고 있는 산인 나성(羅城)이 마치 성곽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섬이지만 바다는 전혀 보이



Fig. 4. Analysis of Susae((水勢; Water environment)

지 않고, 육지의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가옥은 남향을 하면서도 다소 높은 안산이 집을 위압하지 않도록 살짝 동쪽으로 틀어 배치하고 있다.

가옥은 가옥의 뒤에서 용맥으로 칭하는 가옥으로 내려오는 산의 맥을 호종(護從; 호위하면서 따라온)한 물은 혈 앞 명당으로 들어오는 데 이를 도당(到堂)이라 부른다. 도당하면서 가옥의 우측으로 모이고 가옥을 감싸면서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횡대수(橫帶水)의 모습을 보이면서 용맥이 멈추어 중요한 기운이 집에 서리도록 한 후에 작은 못 지당수(池塘水)를 만든다. 이렇게 서출 동류한 물은 지역의 지형에 따라 형성된 것인데 창덕궁 연경당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데 가옥을 보호하는 형세를 하고 있어 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東高西底)의 한국 지형에서는 쉬 보기 어려운 물의 흐름이기도 하다. 지당수를 형성한 후에는 보다 아래쪽의 비보 못으로 물들이 한데 모이는데 이 물은 앞에서도 얘기하였듯이 좌청룡, 우백호 줄여서 용호(龍虎)의 벌어진 부분을 막아서 좋은 기운이 잘 보전되고 외부의 나쁜 기운은 막아주는 비보의 역할을 수행한다. 횡대수 안쪽으로는 샘이 있는데 깊이가 깊지 않은 데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스한 물이 연중 흘러 넘쳤다고 하는 데, 이는 일정한 깊이로 스며들었던 물이 용천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상당히 길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공항공사를 하면서 수맥에 일부 영향을 주어 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지금도 물이 잘 나오고 있었다.



Fig. 5. Wide pond Complementing Open View



Fig. 7. Sarangchae

3. 건축공간의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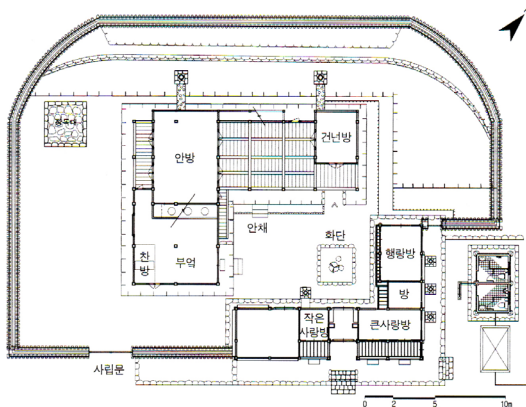


Fig. 6. Lay out Plan (Sauce; Kim H.S., 2012, p.515)

가옥은 ㄱ자형의 안채와 ㄴ자형의 사랑채가 서로 마주보면서 배치된 열린 □자형 배치를 하고 있으며 사랑채 전면은 바깥마당에 개방되어 있는 전형적인 1900년대 전후 경기도 부농의 평면형식이다.⁵⁾

3.1 사랑채 공간

현 가옥은 안채의 종도리에 기록된 상량문을 기록을 볼 때 1890년경 건립된 것으로 보이고 사랑채는 사용된 구법을 통해 1930년대에 신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⁶⁾

가옥은 경사지에 조성되어 사랑마당은 막돌을 쌓아 다소 높은 기단을 조성하여 사랑채를 들었다. 사랑채 대문 앞으로 다섯 단의 돌계단을 놓아 계단을 오르면 용호(龍虎)란 글을 써 붙인 대문에 마주하게 된다. 대문에 용

호를 쓴 것은 대문이 있는 사랑채가 일종의 내청룡, 내백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풍수적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안채에서 보았을 때 좌측 문쪽은 좌청룡의 끝자락, 우측문은 우백호의 끝자락에 해당되어 집의 기운을 잘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

대문은 전체적으로 6칸으로 이루어진 사랑채의 세 번째 칸에 서있다. 가운데에서 좌측(동측)으로 한 칸 치우친 칸에 있는 것이다. 대문 좌측(안채에서 보았을 때 기준)에는 큰 사랑방이 오른쪽으로는 작은 사랑방이 있다. 큰 사랑방은 쌍창으로 문 아래에 머름을 두고 있으며 세 살문을 두고 상인방 위로 공간에 여유가 있다. 반면 작은 사랑방은 머름이 없는 문의 형식으로 작은 양 여닫이문으로 구성되어 상인방이 큰 사랑 쪽보다 낮아 격을 낮추는 모양새이다.

방의 전면에는 퇴칸을 두고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외부 기둥의 상부에는 도리 밑에 받침장여와 가침장여를 두고 그 사이에 작고 전면에만 보이는 쪽지소로(딱지소로라고도 함)로 장식한 소로수장집이다. 처마도 측면은 훌쳐마이지만 모서리 기둥 상부의 추녀 위에 사례를 놓아 사랑마당에서 사랑채에 접근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정면에는 부연을 덧대어 겹처마로 구성하여 사랑채의 격을 높이고 화려하게 꾸몄다.

대문 위에는 격자살의 된 팔각 고창을 두어 이색적이다. 팔각형은 팔 방향을 상징하는 것이다. 팔방은 동, 서, 남, 북의 사방(四方)과 동북, 동남, 서북, 서남의 사우(四隅)를 이르는 것으로 세상이나 나라 전체를 상징한다. 아마도 문을 통해 팔방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빛이 집안으로 들어오기를 염원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집의 대문은 겹대문으로 안쪽의 안마당 쪽에서 한 쪽이 더 걸려있는 것도 특이하다. 현 거주자인 조병수선생에 따르면 이 지역은 초가집이라 하더라도 대체로 이처럼 대문을 바깥과 안쪽에 이중으로 설치한다고 한다. 아마도 섬에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을 하였을 때 방어를 보다



Fig. 8. Sarangchae's Gate

튼튼히 하고 도피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이중으로 설치한 것으로 사료된다.

툃마루 앞에는 디딤돌이 놓여 있는데 이 디딤돌은 자연석들을 사용하여 자연스런 맛이 느껴진다. 그런데 그 옆의 초석을 보니 가공석을 사용하고 있어 디딤돌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초기의 모습은 아니며 원래는 덩벙주초였는데 일제 강점기에 초석이 바뀐 것이다.⁶⁾

작은 사랑방 옆에는 두 칸의 고방이 있는데 이 방에는 방화벽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방화벽에 사용된 돌이 강돌이다. 강돌은 말 그대로 물에 흐르면서 이리저리 부딪혀 기가 다 소진되었다고 보아 일반적으로 민가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돌인데 그런 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수하면서 바뀐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3.2 안채공간

대문을 들어서면 높은 자연석 기단 위에 정면 6칸, 측면 4칸의 ㄱ자 형태의 안채를 마주하게 된다. 6칸의 육간대청을 중심으로 서쪽에 안방, 동쪽에 건넌방 그리고 안방 아래로는 부엌이 있는 전형적인 중부지방 안채의 배치이다. 대청의 밖으로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완자살미서기 유리문이 바깥기둥(外柱)에 간마다 한 짝씩 설치되었다. 이 문은 생활을 하면서 달은 것으로 보이는데 초기의 한옥은 서까래에 달린 걸쇠를 볼 때, 한 칸 정도 안쪽에 사분합문으로 설치되었다가 여름철 들어 열어서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내려 찬바람을 막았을 것이다.

경사지에 순응하여 조성된 안채는 뒤쪽은 기단이 낮고 앞은 3자 가까이 높이로 상당히 높다. 안방에서 부엌으로 갈 때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기단을 한단 내려서



Fig. 9. Anchae

부엌의 높이에 맞게 설치하였다. 현대 기단에 사용된 돌이 이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갖가지 색상을 띠고 있는 돌로 다소 눈에 거슬린다. 예전에는 중량이 나가는 석재의 원거리 이동이 매우 어려워 가까운 곳에서 구해 주변의 환경과 잘 어울려 자연스러웠는데 요즘 보수된 한옥을 보면 종종 그 지역에서 잘 나지 않는 먼 곳에서 운반된 어울리지 않는 석재가 사용되어 주변과 잘 어울리지 않고 어색한 한옥이 적지 않아 아쉽다.

기단은 생활의 편리를 위해 폭이 5자 정도로 넓게 조성되어 있어서 돌출된 기단에 비가 들이지 않도록 서까래 밖으로 양철을 사용하여 부연처럼 밖으로 돌출시켰다.

3.3 후원

안채는 뒤꼍 좌측 상부 쪽의 현부봉에서 용맥이 내려오는 곳이다. 지맥을 살리면서 경사지 지형을 고려하여 2단으로 화계를 조성하였다. 『주자가례』에는 ‘집을 지을 때 다른 것보다 사당을 먼저 건립하고 위치는 정침의 동쪽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전에는 산사람의 살



Fig. 10. Backyard

림집도 중요하지만 조상을 모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동쪽은 서쪽보다 동양의 방위개념상 위계가 더 높은 공간이다. 그런데 동쪽은 서양적 사고방식처럼 지도상에 우측에 표기되어 있는 절대방위가 아닌 정침을 중심으로 한 상대방위이다. 안채에서 보았을 때 좌측은 그 실제 방위가 서쪽이라 하더라도 동쪽으로 간주하고, 이 방향의 약간 위쪽에 흔히 사당이 설치된다. 이 가옥은 경사지에 위치하여 세울 만큼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 이렇게 별도로 사당을 세우기 어려울 경우 사당 안에 모실 위패는 집 안으로 들어와 대청마루에 벽감을 설치하여 모시게 된다. 이 집도 가장 중심이 되는 대청 뒤쪽 상부에 벽감을 마련하고 있다. 조상을 모신 다음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김치와 된장, 간장 등 장류를 보관할 장독대의 위치이다. 장독대는 사당의 반대 방향인 서쪽 방향에 설치되는데, 사당처럼 지형 상 경사지로서 안채 뒤쪽에 설치가 여의치 않다. 그래서 장독대는 안방 측면에 위치하게 되었다. 음양사상에 따르면 동쪽은 양의 방위이고 서쪽은 음의 방위이다. 동쪽은 조상의 혼령중 양에 해당되는 혼을 모시는 공간이므로 양의 방위인 동쪽에 모시는 것이고, 반찬은 우리가 먹는 형상을 띠고 있는 물질로 음에 해당되므로 음의 방위인 서쪽에 두게 된다. 그래서 사당과 장독대가 방위적으로도 음양사상에 맞게 배치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인천시 중구 남목동 용유도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조병수 가옥을 중심으로 입지분석 및 건축공간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옥은 목체형의 주산에서 내려온 토체형 현무봉을 뒤로하고 있다. 현무봉에서 내려온 용맥을 살피기 운이 내려오고 좌청룡과 우백호로 잘 감싸여지면서 안산으로 적절히 가리워진 안온한 터에 자리하고 있다.

둘째, 가옥은 사시사철 맑은 명당수 샘물이 나는 사랑마당과 서출동류하는 물을 앞으로 하여 사랑채와 안채가 서로 모여 튼 □자를 형성하면서 기가 잘 보존되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가옥은 남향을 하면서도 다소 높은 안산이 집을 위압하지 않도록 살짝 동쪽으로 틀어 배치하고 좌청룡과 우백호가 살짝 벌어진 약점은 너른 방지(方池)를 조성하여 비보하였다.

셋째, 사랑채는 전면 6칸 측면 3칸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사지에 맞게 자연석 기단을 조성하고 사랑채를 앉혔다. 지붕은 겹처마이며 소로수장집이다. 동측에는 대문을 중심으로 동쪽에 큰사랑방이 서측에 작은 사랑방과 고방이 배치되었다. 큰사랑방은 작은사랑방보다 격을 높여 머름을 구성하였다. 대문은 육지와 달리 위에는 방어를 위해 겹대문이며 상부에 팔각형 고창을 두었다.

넷째, 안채공간은 3자 높이의 높은 기단 위에 정면 6칸 측면 4칸으로 6칸의 육간대청을 중심으로 서쪽에 안방, 동쪽에 건넌방 그리고 안방 아래로는 부엌이 있는 전형적인 중부지방 안채의 배치이다. 후원은 현무봉에서 용맥이 내려오는 곳으로 경사지로 사당이나 장독대의 배치가 여의치 않아 사당 대신 대청에 벽감을 마련하고 안방의 서측에 장독대를 마련하였다.

References

- [1] Goryeosa 56, jiriji 1, Injujo
- [2] Gwang-Ho Yoon, A research study of the land name of Yongyoudo, 1991, p. 6
- [3]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Hangu Jimyong Eurajip Jungbu Pyeon, 2008, p. 182.
- [4] Interview with Byeong-Su Jo
- [5] Kim Hong-sik, Kim Wang-jik, Architectural Heritage of Korea, 2. Gyonggi-do, Kimundang, 2012, p. 514
- [6] Du-gyu Kim, Pungsu Dictionary Bibong Chulpansa, 2005
- [7] Jong-Koo Han, Byung-Su Jo's House in Jung-gu, Incheon, Hanokmunhwa V.35, Hanok Munhwawon, 2014

한 종 구(Jong-Koo Han)

[정회원]



- 1991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 1999년 7월 ~ 2000년 2월 : 독) 카이저슬라우턴공대 연구학자
- 2002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2015년 8월 ~ 현재 :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
- 2017년 7월 ~ 현재 : 인천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관심분야>

건축계획, 전통건축이론, 한옥과 풍수